

혁신도시건설 실행전략보고회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 행복 수준 더 높여 나가야

균형발전을 얘기하면 수도권 사람들은 뭔가 빼앗기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지방 사람들은 뭔가 빼앗긴 것 되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 갖는 것을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집중을 멈추고 지방이 활력 있게 성장되어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넓지 않은 국토를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이 계속되면 넓지 않은 국토이지만 상당히 많은 농촌공간이 버려지고 황폐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 공간들을 농촌에 사람이 살면서 잘 가꾸지 않으면 도시민도 농촌사람도 잘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농촌사람도 밭불이고 살 수 없고 도시민도 접근해서 자연자원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서 국

토가 버려진다는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도시민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 전 국민에게 두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를 다시 편성하고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공간을 다시 편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쟁력도 높이고 행복 수준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지방도시를 혁신클러스트로 재조직

이 과정에서의 일차적인 작업이 지방의 산업을 살리고 활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방의 활력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궁리들이 모인 것이 대체로 지방혁신 또는 지방도시를 혁신클러스트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논의입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혁신클러스터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그와 같은 혁신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에 인적자원을 오게 하고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보통 그와 같은 혁신이 나와야 하는 대학교에 인재가 모이고 계속해서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환경이 있는가에 대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지방대학을 가지고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어보자는 여러 가지 시도는 있지만, 그 지방대학을 뒷받침해 줄 지식기반이나 산업기반이 만들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로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목표입니다. 공공기관만 개별적으로 달랑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지식 중심인 대학교, 그리고 지금 있는 기업과 앞으로 유인해야 할 기업들이 지방의 활력을 살리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의 혁신도시 구상까지 왔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요소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씩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완결시

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도 의문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혁신 도시는 주변 지역 발전의 구심이 되어야

좋은 주거환경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보다 값이 싸고 좋은 주거환경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여건과 의료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혁신도시가 대도시에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때때로 문화향수를 대도시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문화적 환경을 위한 거리를 배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지역의 경제와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역의 혁신을 끌어내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이 그렇게 넓은데 김천만 혁신도시 만들어 놓고 지방 발전 한다면 경북의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식기반사회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도시, 이것을 하나의 근거지로 해서 성공한 사업이 근거지로 파급되어 지방도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혁신도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시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이 잘 됐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서 혁신 클러스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진행 과정에서의 난관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관 이미 극복하고 있어

저는 수많은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할 때도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의를 만들어내고 하는 일들을 참모들이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공공기관을 어떤 지방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만 해도 갈등요소가 적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해 그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광역단체 안에서 어디에다 혁신도시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수 없는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극복했습니다.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런 문제가 마무리되고 갈등이 극복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다 해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걸 보면서 정말 특별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의 과정에서 이런 난관을 극복한 역량을 보면 남은 문제도 다 극복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내다보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혁신클러스터의 수준 높은 내부 협력관계, 창조적 관계 형성이 성공의 관건

나중에 도시가 성립되고 결국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를 이루면 작은 성공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결국 그 안에 혁신클러스터라는 내용물을 어떻게 채우느냐, 흔히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하는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시를 잘 만들어 놓거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혁신클러스터로서의 수준 높은 내부의 협력관계, 창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혁신도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전체의 혁신역량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지적능력을 축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 차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와 같이 지방의 생산력을 높이고 지방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데는 그것을 감당할만한 지적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끝나고 나서 이제 그와 같은 창조적인 활동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성공이 아닐 것입니다. 혁신도시의 목표와 욕심을 거기까지 맞춰봅시다. 혁신도시가 그저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혁신도시가 경북 전체의 창조적 발전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인적자원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경북 전체의 인적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크기에 대해,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데려올 것인지에 대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어느 정도 덩치가 크지 않으면 빈약하게 느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헬싱키가 56만 명 도시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오울루라는 곳을 가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오타니에미라는 곳에 다녀왔는데, 그곳은 헬싱키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도시이고 핀란드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인데도 인구는 10만 명 남짓하고 아직 작았습니다. 오울루는 오타니에미보다 더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규모의 도시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창조하는 혁신클러스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여 살려야 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훨씬 많아야 하

고, 또한 큰 규모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규모가 반드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하는 도시는 규모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혁신도시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도시가 조금 촉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애착을 가지고 할 때와 아닐 때의 동력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사업은 지방의 강력한 요구 위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촉진해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졸속이 되지 않고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고, 이 일에 참여한 분들이 혁신도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